

수입냉동개고기 14톤
「혈오식품」 반송 조치
 ◇ 부산본부세관 14일 동업
 산사(대표 박건
 성경기도동부
 천사)가 지난달
 14일 수입 부산
 항보세창고에 동
 관 대기중인 열살바도트산
 냉동개고기 13.9t(9백
 42마린)에 대해 불만을
 불어, 반송조치로 결정.
 부산세관은 「동업산사는
 반입신고서에 기타육(肉)
 과 식용내장으로 기재한 뒤
 개고기를 수입했지만 보사
 부등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
 과 개고기는 혈오식품으로
 규정되었기 때문. 식용내장
 산 식품이므로 수입신고 불
 적행에 해당한다 하여, 동
 관에 반송조치로 결정.

Sae ge Il bo

세 계 일 보

1992年 9月15日

수입냉동 개고기 14t
「혈오식품」 반송 결정
 【출처】『금일경자』 부산
 본부세관은 14일 동업산사
 (대표 박건성·경기도동부
 천사)가 지난달 수입 부산
 항보세창고에서 불만대
 기중인 열살바도트산 냉동
 개고기 13.9t(1만4천
 달라어치·9백42마린)에
 대한 불만을 불어, 반송조
 치기로 결정했다.
 부산세관은 「동업산사는
 반입신고서에 기타육과 식
 용내장으로 기재한 뒤 개고
 기를 수입했지만 보사부등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개고기는 혈오식품으로 규
 정되었기 때문. 식용내장
 산 식품이므로 수입신고 불
 적행에 해당한다 하여, 동
 관에 반송조치로 결정.

Kyunghyang Shimoon and Saeg News Daily

Sept 15, 1992

Pusan customs headquarters decided that they will not give permissssion to pass 13.9 tons (942 dogs, worth \$14,000.00) of the frozen dog meat imported from El Salvador by Park, Jin-Sung, owner of Dongil Company(Viva company) in Dongdochun city, Kyungkido, through the customs and ordered the dog-meat will be returned to El Salvador. Pusan customs made clear that the Dongil company written the dogmeat as other meat in the document but dog meat is ruled as the disgusting food by Minstry of Health and also can not be considered as food under the Livestock production and sanitation act.